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겨울비가 추적이며 내리는 2011년 말. 그리스 의회는 IMF 구제금융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공황에서 시대로 이르는 가도에는 곳곳에 시위용품...

영문을 모르는 여행자들은 그리스 전통의상을 입은 근위병의 모습과, 시위를 벌이는 청바지 차림의 청년의 시위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히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군중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더니, 국회의사당과 총리 관저, 각국 대사관이 물려있는 중심 도로가 마비되었고 수십만의 군중들은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포위했다. 그날 그리스 의회는 역사적인 결단을 앞두고 있었다.

90년대 대한민국의 암울했던 그날, 김창

렬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금융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던 바로 그날의 운명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 그리스 의회는 오후 5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구제 금융안을 의결하게 되어 있었지만,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야당의원 22명이 격렬한 반대 토론 후 7시쯤 먼저 퇴장했다. 시민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연호했다.

충분한 시민들은 그날을 '유럽연합, 유럽 중앙은행, 독일'의 트로이카가 매국적 대외자들과 함께 그리스를 팔아먹은 날로 규정하고 있었다. 곳곳에 유로존의 지도 위에 나찌의 문양을 그린 포스터가 붙어있고, 네오나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쳐들었다.

결국 결의안은 통과되었고, 시위는 점점 격렬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거리는 두 가지 모습이었다. 끝목 한쪽에서는 일부 히피들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몸싸움

과 길거리에 방화를 하는 모습까지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고 지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국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마치 커다란 폭동이라도 일어난 듯 외신으로 실시간 전해진 검은 연기의 그리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셈이다.

시민 몇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았다. "만약 구제 금융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5일 내에 국가부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대를 한다던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도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들에게(정치인들) 최소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셈이다.

실제 그리스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망진진 연금체계. 유럽 최대 규모의 지하경제, 낮은 담세율,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문제다. 일부에서 제기하듯 낮은 자는 게으른 민족이라는 편견은 그들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본질은 근본 문제를 방치한 무능한 정치와 불투명한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유로존 가입이라는 악수를 둔 것이었을 뿐, 그리스의 경제 규모는 일인 ...당 소득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1.5배 수준이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다.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았고, 공적연금을 평균 75% 삭감했으며, 길거리 노점상에 가까이 과세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최대 환구인 피레우스항구까지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런 그리스의 문제가 강 건너 불이나 남의 일만은 아니다. 증가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역시 같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문제를 모를 수는 있다. 하지만 알면서 고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스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노란 신호등인 것이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社說

'국제도시' 광주 손님맞이 문화 영망이라니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손님맞이 수준이 입김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호남선 KTX 개통 등 대형 이벤트는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일부 호텔과 유명 음식점의接客 문화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내·외국인은 226만8000명(외국인 15만8000명)에 달한다. 21개의 국제행사가 열린 올해는 행사 관련 방문객만 120여만 명(외국인 3만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행사와 관련해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 대부분은 해당 국가나 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귀빈들이어서 주최 측은 의전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요 행사 때면 으레 뒤따르는 오찬이나 만찬에 제공되는 음식과 서비스 수준이 영망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유명 레스토랑이나 음식점·호텔

등에서 다 식은 스테이크를 내놓는가 하면 음식 접시를 던지듯 내려놓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정 음식은 제외해 달라는 외국인 손님의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종업원들이 카트를 밀고 다니며 떠드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게 행사 주최측 관련자들의 전언이다.

광주는 예로부터 각종 먹거리 재료가 풍부하고 손맛이 뛰어나며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한다고 하여 미향(味香)으로 불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무성의와 불친절 접대는 손님들의 입맛을 싹 가시게 할 것이다.

유명 음식점이나 호텔은 단순한 접객업소가 아니라 광주의 책과 맛을 전하는 최일선 창구다. 손님을 맞을 때 예의와 정성을 다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겨 환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실 서비스를 부채질하는 행사 주최 공공기관들의 음식·숙박비 후려치기는 없는 것인지 지자체가 나서 조사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전선 무궁화호 목표~순천 폐지 안 된다

목포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구간 중 목포~순천 노선을 없애려는 철도공사(코레일) 방침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 지방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노선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 등은 코레일이 목포~순천 노선의 이용객이 적어 다음달 24일부터 무궁화호 열차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 구간의 노선 폐지는 영·호남 상생 정책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노선인 순천~목포 간 무궁화 열차 운행 폐지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1968년 개통한 목포~순천 노선은 지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 교류역할에 중요한 통로이자 지역균형 개발과 영호남 화합을 위해 존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궁화호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폐지한다는 건 발을 묶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열차 이용객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목포~부산 11만2200명, 부산~목포 7만2000명 등 18만여 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 노선이 없어지면 지역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코레일 측은 목포~순천 노선이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 계획을 내놓았지만 철도는 교통복지이자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 논리로 따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KTX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적자 노선에 투입해 운영해왔던 것도 이런 이유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목포~순천 노선은 존속되어야 한다. 코레일은 노선 폐지를 계속 철회하고, 남해안철도도 건설된 후에 폐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철도의 공공성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12월은 감사를 찾는 달 되길



서문성 원불교 산수교당 교무

그 많은 범문을 살피셨지만 당시 '조달'이라는 사람은 부처님을 '팔만사천자가'로 흠을 보았다고 합니다.

필자는 지난 법회 설교에서 교도님들에게 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조달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하면 부처님도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달과 같이 부정적이고 단점만 바라보는 카드는 안에서 나오자 아우성 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 써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업(業)을 짓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처님도 하느님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단점과 아쉬운 점만 찾기 시작하면 아쉬움만이 나에게 다가오고, 은혜와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은혜와 감사만이 다가옵니다.

원불교 정산 승규 중사는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四隱,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네 가지 은혜인 천지·부모·동포·범물의 은혜)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마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때 한 제자가 "독자가 어찌 동포은'이 되겠습니까?"라고 여쭙자 "마물인 곤충이 있어야 하겠느냐, 없어야 하겠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라고 답하자 "그러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아님이 없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원망과 단점은 찾지 않아도 잘 다가오고 느껴지며, 은혜와 감사는 찾을 때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는 감사는 '나에게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해 주었으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며 하는 것

입니다.

은혜와 감사를 찾다 보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계속해서 배가되어 돌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원망과 아쉬워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접어두고 은혜로웠던 일, 감사한 일을 찾아 보면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처음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찾기가 시작하면 온통 은혜로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은혜의 덩어리요, 감사의 덩어리로 느끼는 순간 은혜와 감사의 신령스런 기운이 나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에 메마른 세상살이라도 밝고, 맑은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될 것입니다.

12월에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배배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일에 바쁘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고

'층간 소음' 피할 수 없다면



김광태 호남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팀장

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해소하여 이웃 간의 배려문화를 확산하고자 '2012년 3월 개소되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013년 11월 광주 등 5대 광역시 확대, '14년 6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서는 전문상담사 4인으로 구성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호남권센터가 개소 된지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접수 건은 총 201건으로 광주 164건, 전남 19건, 전북 18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접수 후 전화상담만으로 해결이 된 건수가 49건, 1차 현장 상담 후 해결된 건수가 77건, 방문 상담 후 조정중인 건수는 44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어 대기건수(23건), 소음측정건수(8건)를 제외하고 70% 이상 분쟁 조정되었다.

분쟁조정 절차는 신청인 우선 상담을 진행한 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신청인의 상담동의 여부를 확인 후 피신청인 상담을 진행하고 피신청인이 상담을

거부하면 조정기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드리고 종료 처리된다. 피신청인이 상담에 동의하게 되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1차 개별 방문 상담 후 각각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한 달간 조정기간을 거쳐 추후 소음이 줄어들지 않거나 더 심해졌을 경우 소음측정을 통한 측정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2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상담까지 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하여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까지 2차 소음측정은 8건으로 총 방문 건수 중 약 7%에 불과해 대다수 분쟁이 1차 방문상담으로 분쟁완화가 되고 있어 층간소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면 센터를 활용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분쟁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쟁조정

의 한 예로 신청인 A씨에 따르면 아래층 거주자로 육체노동이 따르는 직업을 갖고 있어 하루의 피로를 녹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내 집 뿐인데 위에서 발생하는 아이 뛰는 소리, 어른 발걸음 소리로 인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날 정도였던 상황에서 위층과 직접대화 및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요청에도 층간소음 분쟁해

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난 후 거짓말처럼 소음이 줄어들어 지금과 같으면 집에 와도 편히 쉬 수 있을 정도라며 중재기간 후 전화를 드렸을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이렇듯 서로 이해와 배려가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폭행 및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만 더 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한 건물을 다 같이 공유하고 사는 이상 의도하지 않는 소음은 발생이 되기 마련이므로 층간소음 해결이 쉽지 않다면 주저하지 않고 센터에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사들은 어떠한 청탁도 어떠한 부정도 없이 한쪽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립하게 업무를 임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힘쓸 것이다.

無等鼓

교보문고가 집계한 상반기 최고 베스트셀러는 '에드워드 틀레인의 신기한 여행'이었다. 지난 2009년 아동도서 전문출판사 '비룡소'가 펴낸 이 책은 4년간 1만 부 넘게 팔렸다. 반면 지난 4~5월 두 달 동안 팔린 게 17만부였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한 덕이었다.

7~8월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다. 영화 개봉과 함께 판매량이 경증되었다. 200만 부를 돌파한 만화 '미생'은 원래 히트작이기도 했다.

이렇듯 서로 이해와 배려가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폭행 및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만 더 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한 건물을 다 같이 공유하고 사는 이상 의도하지 않는 소음은 발생이 되기 마련이므로 층간소음 해결이 쉽지 않다면 주저하지 않고 센터에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빨간 책방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언 맥큐언의 '속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의외였다. 발간된지 10년도 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속죄'를 알게 된 건 '빨책' 덕분이었다. '빨책'에서 언급한 많은 책들은 하나 둘 친구 책장에 꽂히게 됐다. 출판사들 사이에서는 "빨책에 나오면 초반은 소진되고 재판을 찍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빨책'은 영화평론가 이동진과 소설가 김중혁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말한다.

도시 관련 팟 캐스트가 인기가. 팟캐스트(Podcast)는 아이팟(ipod)의 팟(Pod)과 방송을 뜻하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의 캐스트(cast)를 합친 단어다. 아이팟과 같은 휴대용 디지털 플레이어 등 달 동안 팔린 게 17만부였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한 덕이었다.

7~8월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다. 영화 개봉과 함께 판매량이 경증되었다. 200만 부를 돌파한 만화 '미생'은 원래 히트작이기도 했다.

이렇듯 서로 이해와 배려가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폭행 및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만 더 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한 건물을 다 같이 공유하고 사는 이상 의도하지 않는 소음은 발생이 되기 마련이므로 층간소음 해결이 쉽지 않다면 주저하지 않고 센터에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 관련 팟 캐스트는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을 시초로 꼽는다. 이후 창비의 '라디오 책방', 정이현이 진행하는 교보문대출판 '미디어 셀라의 위력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언 맥큐언의 '속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의외였다. 발간된지 10년도 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속죄'를 알게 된 건 '빨책' 덕분이었다. '빨책'에서 언급한 많은 책들은 하나 둘 친구 책장에 꽂히게 됐다. 출판사들 사이에서는 "빨책에 나오면 초반은 소진되고 재판을 찍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빨책'은 영화평론가 이동진과 소설가 김중혁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말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